

# 성격요인검사의 타당도연구

김 정 규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Cattell의 16PF를 한국표준화한 성격요인검사에 대한 타당도 연구를 실시하여 이 검사의 표준화연구에서 미비했던 타당도 연구를 보완하여 이 검사의 좀 더 나은 임상적 사용을 돕고자 했다.

성격요인검사의 구성타당도 연구부문에서는 다면적인성검사, 이화자아방어검사, 스트레스보고검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성격요인검사척도들의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대부분의 척도들에서 선행연구 및 표준화연구의 결과들을 재확인해 주거나 더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해주었다. MMPI 검사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척도들이 서로 예상된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화자아방어검사와의 관계에서는 성격요인검사의 역동적인 특성이 밝혀졌다. 스트레스보고검사의 사용은 전문가의 평정을 사용함으로써 자기보고형검사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들을 토대로 관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정신분열증집단은 54.8%, 정동장애집단은 53.1%, 신경증집단은 34.6%, 정상집단은 53.2%가 각각 자기집단에 올바르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49.58%가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임상심리학에서 심리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심리검사를 활용함으로써 짧은 시간안에 효과적으로 피험자나 내담자, 환자의 성격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한 심리검사 도구가 있으므로 해서 환자의 치료효과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정신과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임상심리학자들은 아직도 상당한 기간동안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진단과 평가를 해야할 것 같다. 그

\* 이 논문은 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러나 정작 임상장면에서 사용할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검사도구는 아주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염태호와 김정규가 R. B. Cattell이 제작한 16 PF 검사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번역하여 한국판 성격요인검사를 제작한 바 있다(염태호와 김정규, 1990).

이때 일차 예비검사에서는 1,501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문항분석을 하여 신뢰도가 높은 문항만을 골라 검사도구를 제작하였으며(김정규, 1990) 이를 3,714 명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집단에 실시하여 검사요강을 작성 하고 해설을 추가하여 발간했다(염태호와 김정규, 1990).

성격요인검사는 일차예비연구 및 이차 표준화연구에서 신뢰도가 높은 검사임이 입증되었으나(김정규, 1990; 염태호와 김정규, 1990) 심리검사의 유용성은 높은 신뢰도 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검사가 실제 임상장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검사가 사용될 장면에서의 타당도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성격요인검사에 대해 이루어진 타당도연구로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 이지숙(1990)의 알콜중독자 및 그 자녀들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염태호와 김정규(1991)의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염태호, 김정규(1991)의 한국 고교생과 대학생집단의 계열별 성격특징에 관한 연구(미 발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검사 표준화연구와 성격요인검사에 대한 다른 타당도 연구들에서 미비했던 타당도연구를 보완하여 성격요인검사의 좀 더 나은 임상적 사용을 돕고자 한다. 특히 성격요인검사의 다른 검사도구들과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임상집단들과 정상집단의 비교를 통한 기준타당도를 연구하고자 했다.

## 연구 I

성격요인검사의 척도들과 다른 검사도구들과의 상관연구를 통하여 성격요인검사척도들의 특징을 조명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16PF검사의 임상적인 유용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Brennan, 1967; Cattell, Komlos, &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 Krug, 1981; 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검증해보기 위하여 구성타당도연구에서는 국내 임상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면적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성격요인검사의 임상적인 특징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16PF검사는 문화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검사라고 보고되고 있지만(Cattell & Nesselrode, 1965; Cattell, Schröder & Wagner, 1969; Cattell, Eber & Tatsuoka, 1970) 검사가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고, 또한 언어는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적 경험체계를 집단표상의 형태로 전달하므로(Farr & Moscovici, 1984) 16PF 검사의 한국표준화에 의해 언어적 매개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척도의 의미변질을 조사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화자아방어검사(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를 구성 타당도 검증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검사는 한국의 전래 속담을 바탕으로하여 제작된 검사로서 한국인 특유의 심리적특성을 밝혀줄 것으로 저자들은 기대하고 있다(김재은 등, 1991; 이근후, 김재은, 김정규, 박영숙, 1991). 그리고 이 검사는 정신분석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신역동적인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이 검사와의 비교연구에 의해 성격요인검사의 임상적인 효용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화자아방어검사는 자기보고식검사이므로 이런 형태의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검자들의 대담왜곡경향성의 문젯점들(Krug, 1968; Krug & Cattell, 1970; Millham & Kellogg, 1980; Mummendey & Bolton, 1981; Rosch, Chassein, Semin & Krolage, 1984; Wittman & Schmidt, 1983)을 완화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보고검사를 개발하여 함께 실시했다.

## 방 법

### 피험자

다면적인성검사(MMPI)와의 구성타당도연구에

는 이화여대부속병원, 경희의료원, 국립정신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는 정신과환자 231명(남 129, 여 102)이 그리고 이화여자방어검사, 스트레스보고검사와의 구성타당도연구에는 일반인 449명(남 219, 여 230)이 각각 참여했다.

이때 정신과 환자집단은 기준타당도에 참여한 피검자들과 동일했고 일반인집단은 성, 연령, 학력 변인들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집단을 표집했다.

## 도 구

### 1. 성격요인검사

염태호와 김정규(1990)가 표준화한 Cattell의 16PF 한국판검사로 16개의 일차요인과 6개의 2차요인 그리고 2개의 타당도척도를 갖는 165 문항으로 된 검사도구이다.

### 2. 다면적인성검사

신판 MMPI(김영환 등, 1989) 566문항을 사용하였다.

### 3. 이화여자방어검사

김재은 등(1991)이 표준화한 도구로 20개의 방어기제척도가 있고 각 척도마다 10문항씩 전체 200 문항으로 되어있다.

### 4. 스트레스보고검사

스트레스보고검사는 본 연구자가 199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성, 연령 그리고 학력을 고려해서 표집한 일반인 450여명의 스트레스체험보고 면접자료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여 제작한 검사이다.

제작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1990년 2 학기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한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120 여명에게 한 사람이 4명의 할당된 피면접자를 만나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4 가지씩 조사하고,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도 적어오도록했다. 그 자료를 본 연구자가 내용적으로 분류하여 중복되는 것들은 빼고 유사한

내용은 합쳐서 40개의 비교적 독립적인 영역을 추려낸후 각각 간결하고 의미있는 문장형태로 재구성하여 검사로 제작하였다.

이 검사는 개방적인 질문(open question)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피검자들이 검사의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없어서 대답왜곡경향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채점은 피검자들의 반응을 이화여자방어검사에서 사용하는 20가지의 방어기제의 범주와 그 이외의 “적극적인 대처반응” 및 “부정적 감정반응”의 두 범주를 추가하여 22 개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과의사 1명과 임상심리학자 1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피검자들이 사용한 방어기제에 대하여 분류한 것을 각 방어기제의 사용횟수로 채점하고나서, 두 채점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했다. 두 채점자간의 신뢰도는 거의 대부분 척도에서 .90 이상의 높은 상관울 보였다.

## 절 차

일차적으로 먼저 임상집단들에게 성격요인검사와 다면적인성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척도들의 Pearson 적률 상관관계울 계산하여 성격요인검사와 다면적 인성검사와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성격요인검사와 이화여자방어검사 그리고 스트레스보고검사를 동시에 실시한후 이 세검사의 상관관계울 토대로 성격요인검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결 과

(표 1)에서는 모두  $p < .01$  이상의 통계적 유의도를 지닌 결과들만 제시하였다. 이때 MMPI 와의 관계에서는  $r$  값이 .21 이상, 그리고 이화여자방어검사 및 스트레스보고검사와는  $r$  값이 .19 이상이면  $p < .001$ 의 통계적 유의도를 지닌다.

성격요인검사와 MMPI의 Mf 척도와와의 관계는 Mf 척도가 남성집단과 여성집단에서 갖는 의미가

표 1.

성격요인검사	MMPI	이화방어검사	스트레스보고검사
척도1(A)	F(-.19), D(-.24) Pt(-.24), Sc(-.27) Si(-.40)	허세(.17), 동일시(.14) 통제(.25), 유우머(.24) 행동화(-.14), 회피(-.25)	회피(-.21) 현실적대처(.17)
척도2(B)	F(-.23)	합리화(-.16), 부정(-.24)	억제(.15) 현실적 대처(.18) 우울감정반응(-.22)
척도3(C)	L(.31), K(.39) F(-.46), Hs(-.30) D(-.48), Hy(-.27) Pd(-.45), Pa(-.42) Pt(-.49), Sc(-.51) Si(-.48)	억제(.30), 예견(.26) 합리화(.19), 반동형성(-.17) 허세(-.30), 동일시(-.29) 수동공격(-.25), 투사(-.43) 전치(-.49), 해리(-.49) 신체화(-.40), 행동화(-.20) 퇴행(-.47)	현실적대처(.28) 동일시(-.17) 수동공격(-.17) 왜곡(-.17) 행동화(-.20) 퇴행(-.20) 우울감정반응(-.19)
척도4(E)	Ma(.36), D(-.26) Si(-.28)	허세(.16), 동일시(.19) 통제(.49), 왜곡(.35) 승화(.34), 이타주의(.27) 유우머(.30), 회피(-.17)	반동형성(.14) 통제(.20) 회피(-.17) 우울감정반응(-.15)
척도5(F)	Ma(.28), Hy(-.19) D(-.34), Pt(-.24) Si(-.47)	행동화(.16), 이타주의(.16) 퇴행(.18), 허세(.239) 반동형성(.20), 동일시(.20) 통제(.38), 왜곡(.20) 승화(.25), 유우머(.47) 회피(-.18)	수동공격(.14) 통제(.14) 현실적대처(.17) 행동화(.18) 회피(-.15) 우울감정반응(-.16)
척도6(G)	F(-.19)	통제(.15), 억제(.41) 예견(.50), 합리화(.23) 이타주의(.21), 해리(-.15) 허세(-.22), 수동공격(-.20) 투사(-.24), 전치(-.24) 행동화(-.19), 퇴행(-.27)	현실적대처(.16) 회피(-.15) 수동공격(-.21) 전치(-.18) 행동화(-.25)
척도7(H)	K(.21), Ma(.18) Hy(-.18), Pd(-.20) HS(-.22), D(-.43) Pt(-.34), Sc(-.28) Si(-.67)	예견(.14), 통제(.59) 왜곡(.32), 승화(.239) 이타주의(.42), 회피(-.30) 유우머(.47)	통제(.16), 예견(.22) 반동형성(.19) 우울감정반응(-.20) 현실적대처(.26) 회피(-.18)
척도8(I)	Ma(.17), Sc(.15)	허세(.27), 반동형성(.28) 동일시(.30), 수동공격(.18)	

		투사(.23), 전치(.23) 해리(.37), 신체화(.26) 승화(.31), 퇴행(.33)	
척도9(L)	Pt(-.20), SI(-.26)	반동형성(.16), 통제(.35) 왜곡(.24), 수동공격(.15) 승화(.22), 이타주의(.21) 유우머(.19), 회피(-.18)	예견(.14) 회피(-.18)
척도10(M)	F(.25), Pa(.26) Sc(.25), Ma(.33) K(-.19)	신체화(.15), 허세(.20) 반동형성(.25), 동일시(.21) 통제(.26), 왜곡(.25) 해리(.20), 이타주의(.26) 퇴행(.27), 유우머(.24)	승화(.15)
척도11(N)	D(-.19), Pd(-.19) Pa(-.17), F척도(-.24) Pt(-.28), Sc(-.28) Si(-.27)	반동형성(.17), 억제(.18) 유우머(.15), 통제(.20) 예견(.24), 행동화(-.20) 회피(-.22)	현실적대처(.15) 회피(-.17)
척도12(O)	F(.34), Hs(.38) D(.46), Hy(.32) Pd(.33), Pa(.38) Si(.53), L(-.33) K(-.38)	허세(.26), 반동형성(.24) 동일시(.43), 수동공격(.36) 투사(.48), 전치(.48) 행동화(.30), 퇴행(.53) 회피(.29), 억제(-.18) 예견(-.14)	수동공격(.15) 전치(.14) 동일시(.24) 우울감정반응(.20) 부정(-.16) 억제(-.16) 현실적대처(-.24)
척도13(Q1)		반동형성(.15), 퇴행(.15)	
척도14(Q2)		부정(.28)	부정(.17)
척도15(Q3)	F(-.22), D(-.26) Pd(-.22), Pt(-.26) Sc(-.24), Si(-.24)	왜곡(.17), 이타주의(.31) 허세(-.24), 수동공격(-.21) 투사(-.26), 전치(-.22) 행동화(-.23), 퇴행(-.25)	억제(.15), 퇴행(-.14) 현실적대처(.16) 전치(-.13) 행동화(-.21) 수동공격(-.23)
척도16(Q4)	F(.34), Hs(.43) D(.49), Hy(.40) Pd(.30), Pa(.38) Pt(.51), Sc(.48) Si(.46), L(-.30) K(-.43)	회피(.14), 허세(.34) 동일시(.32), 수동공격(.28) 투사(.52), 전치(.53) 해리(.50), 신체화(.50) 행동화(.37), 퇴행(.49) 예견(-.32), 합리화(-.23)	왜곡(.15), 전치(.19) 동일시(.23) 수동공격(.18) 퇴행(.27), 억제(-.23) 신체화(.18) 현실적대처(-.25) 우울감정반응(.20)
동기왜곡척도(MD)	K(.17), F(-.20) Hs(-.34), D(-.48)	승화(.15), 통제(.40) 억제(.46), 왜곡(.27)	이타주의(.14) 예견(.22)

	Hy(-.32), Pd(-.26) Pt(-.39), Sc(-.31) Si(-.53)	예견(.50), 합리화(.19) 이타주의(.42), 유우머(.27) 허세(-.17), 회피(-.16) 수동공격(-.22), 투사(-.30) 전치(-.31), 해리(-.29) 신체화(-.22), 행동화(-.20) 퇴행(-.35)	현실적대처(.28) 퇴행(-.16) 동일시(-.20) 수동공격(-.18) 행동화(-.18) 회피(-.18) 우울감정반응(-.18)
이차요인 I (EXT : 외향성)	K(.19), D(-.33) Pt(-.27), Sc(-.25) Si(-.51)	허세(.15), 반동형성(.15) 승화(.17), 동일시(.19) 통제(.40), 왜곡(.18) 이타주의(.27), 유우머(.40) 부정(-.20), 회피(-.30)	반동형성(.16) 통제(.14), 예견(.14) 현실적대처(.24) 부정(-.15) 회피(-.24)
이차요인 II (ANX : 불안성)	F(.40), Hs(.41) D(.56), Hy(.37) Pd(.39), Pa(.40) Pt(.56), Sc(.53) Si(.61), L(-.31) K(-.41)	허세(.32), 동일시(.35) 수동공격(.35), 투사(.54) 전치(.55), 해리(.55) 신체화(.51), 행동화(.32) 퇴행(.55), 회피(.26) 통제(-.22), 억제(-.37) 예견(-.34), 합리화(-.23) 이타주의(-.27) 유우머(-.23)	전치(.17), 왜곡(.18) 신체화(.14) 동일시(.25) 수동공격(.18) 억제(-.19), 퇴행(.26) 행동화(.19) 예견(-.18) 우울감정반응(.25) 현실적대처(-.34)
이차요인 III (TOU : 강정성)	Sc(-.20), Ma(-.20)	합리화(.14), 투사(-.17) 왜곡(-.16), 반동형성(-.28) 허세(-.26), 동일시(-.28) 전치(-.20), 해리(-.33) 신체화(-.25), 승화(-.35) 퇴행(-.31)	승화(-.16)
이차요인 IV (IND : 자립성)	Ma(.24), Hy(-.19) Hs(-.24), D(-.43) Pt(-.34), Sc(-.22) Si(-.59)	반동형성(.18), 통제(.55) 왜곡(.37), 승화(.31) 이타주의(.33), 유우머(.42) 회피(-.30)	반동형성(.18) 통제(.18), 예견(.20) 우울감정반응(-.24) 현실적대처(.26) 회피(-.19)
이차요인 V (SUP : 초자아 강도)	F(-.22), Pd(-.18)	억제(.49), 예견(.56) 합리화(.27), 이타주의(.23) 허세(-.27), 수동공격(-.23) 투사(-.28), 전치(-.25) 행동화(-.24), 퇴행(-.30)	억제(.15), 전치(-.18) 현실적대처(.13) 동일시(-.15) 퇴행(-.14) 수동공격(-.25) 행동화(-.27)
이차요인 VI (CRE : 창의성)	K(-.18)	동일시(.16), 수동공격(.17) 통제(.15), 왜곡(.18)	우울감정반응(-.17)

무작위척도 (RANDOM)	전치 (.16), 유우머 (.18) 투사 (.19), 해리 (.19) 승화 (.31), 퇴행 (.22) 합리화 (-.14)	
	통제 (-.14), 왜곡 (-.16) 예견 (.17)	허세 (.14) 수동공격 (.18)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계산했다. 그 결과 MMPI의 Mf척도는 성격요인검사와 남성집단에서는 M요인(.20) 및 Q3 요인(.22)과 각각 .05 수준에서 그리고 여성집단에서는 B요인(-.19) 및 I요인(-.18)과 각각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연구 2

성격요인검사의 척도들이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어느정도 잘 변별해 주는지를 조사연구함으로써 성격요인검사의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때 선행연구결과들 (Brennan, 1967; Cattell, Eber & Tatsuoka, 1970; Cattell, Komlos & Tatro, 1968; Karson & O'Dell, 1976) 및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의 결과들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MMPI검사의 변별력과 성격요인검사의 변별력을 비교해볼 목적으로 같은 임상집단에 대하여 MMPI검사를 사용하였을 때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성격요인검사의 척도들을 사용하여 임상집단을 예언하기위한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 방법

### 피험자

기준타당도연구에 참여한 임상집단은 이화여대 부속병원, 경희의료원, 국립정신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는 정신과환자들이었다.

그리고 일반인집단은 성, 연령, 학력변인들을 고려하여 임상집단과 비교가능한 집단을 표준화연구의 표본으로부터 무선 선발하였다. 각 집단의 표집수는 아래와 같다.

표2.

	신경증	정신분열증	장동장애	정상집단
남자	26	35	24	32
여자	26	39	26	32
합계	52	74	50	64

Chi-Square .15 D.F 3 Significance .98

표3.

	신경증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정상집단
19세이하	9	13	3	10
20세-29세	27	34	18	26
30세-39세	12	18	18	18
40세 이상	4	9	12	10
합계	52	74	51	64

Chi-Square 11.92 D.F 9 Significance .22

임상집단은 표집수가 적은 진단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나서 성, 연령별로 비교가능한 대조군을 선발하였다. 그리고나서 일반정상집단은 임상집단의 분포에 상응하는 표집을 표준화 집단에서 SPSS-PC+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선

적으로 선별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선별된 피검자들은 성, 연령별로 비교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 도 구

### 1. 성격요인검사

염태호와 김정규(1990)가 표준화한 Cattell의 16PF 한국판검사로 16개의 일차요인과 6개의 2차요인 그리고 2개의 타당도척도를 갖는 165 문항으로 된 검사도구이다.

### 2. 다면적인성검사

신관 MMPI(김 영환 등, 1989) 566문항을 사용하였다.

## 절 차

일차적으로 먼저 임상집단들에게 성격요인검사와 다면적인성검사를 실시한후, 표준화연구에 사용된 일반 정상인표집 중에서 임상집단과 성, 연령, 학력이 비교 가능한 집단을 무선선발하였다.

그리고나서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에 대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사용하여 성격요인검사척도들의 집단간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임상집단에 대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사용하여 다면적 인성검사 척도들의 기준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성격요인검사의 척도들을 사용하여 일반정상 집단 및 임상집단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성격 요인 검사 척도들의 집단별 평균점수와 Duncan 사후검증 결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MMPI를 사용하여 임상집단들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표 5)

마지막으로 성격요인검사척도들을 바탕으로하여 정상집단과 임상집단들의 진단범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별분석을 통하여 검증해보았는데 이를 정리한 도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6)과 (표 7)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 Func 1 에의해 정상집단과 신경증집단은 정신분열증집단 및 정동장애집단과 차이를 보인다. 즉, 앞의 두 집단은 후자 집단에 비하여 B요인과 L요인 점수가 높다. 그리고 정동장애집단은 Func 2 에의해 정신분열증집단과 변별되는 바, 전자는 후자에 비해 A요인, I요인, N요인 점수가 높다. 그리고 정상집단과 신경증집단은 Func 3 에의해 변별되는 바, 정상집단은 신경증집단보다 Q4요인과 O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그리고 E요인과 F요인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세 개의 Function을 사용하여 네 집단을 분류한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류된 확률은 49.58% 달하여 평균 24.58%의 net gain을 확보해주고 있다. 단일 검사를 토대로 예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정신분열증집단은 54.8%, 정동장애집단은 53.1%, 정상집단은 53.2% 각각 자기집단에 올바르게 분류되어 매우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여주고있다. 신경증집단은 34.6%의 분류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상집단에 잘못 분류된 것이 30.8%이며 정신분열증과 정동장애집단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각각 17.3% 씩이었다.

## 논 의

연구 1과 2의 결과들을 성격요인검사의 척도별로 순서에 따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A요인; 온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다정하고, 온정적이며, 사교적이고 낙천적” (염태호와 김정규, 1990) 성격이다. 이 척도가 MMPI의 척도 F, 2, 7, 8, 0들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이 척도의 구성개념과 잘 합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가령, MMPI의



표4. 각 집단별 성격요인검사 척도평균점수, 괄호안은 표준편차

척도명	정상집단(a)	정신분열증(b)	정동장애(c)	신경증(d)	비교
척도 1(A요인)	31.72(4.85)	31.28(4.69)	33.68(4.44)	31.82(4.73)	c>a, b, d*
척도 2(B요인)	11.48(2.92)	9.70(3.33)	9.65(3.28)	10.69(2.76)	a>b, c*
척도 3(C요인)	31.56(5.25)	30.83(4.42)	30.20(6.76)	29.65(4.73)	
척도 4(E요인)	31.63(5.18)	29.89(4.82)	31.63(4.43)	30.10(4.23)	a>b*
척도 5(F요인)	30.93(6.72)	27.73(4.35)	30.58(6.20)	28.92(6.88)	a, c>b*
척도 6(G요인)	35.24(5.49)	34.22(5.12)	36.96(5.01)	35.28(6.17)	c>b*
척도 7(H요인)	27.87(6.51)	27.20(5.51)	28.80(7.35)	26.02(6.77)	c>d*
척도 8(I요인)	30.64(5.06)	32.27(4.97)	34.25(4.67)	32.10(4.70)	c>a, b, d*
척도 9(L요인)	32.12(4.18)	29.55(3.60)	30.75(4.17)	31.02(4.03)	a>b*
척도10(M요인)	27.25(4.59)	27.05(4.09)	27.33(5.50)	26.94(4.06)	
척도11(N요인)	31.02(3.42)	28.89(3.79)	30.43(3.56)	30.65(3.99)	a, c, d>b*
척도12(O요인)	31.22(5.23)	30.41(5.59)	31.92(6.39)	33.40(6.15)	d>b*
척도13(Q1요인)	33.71(4.35)	32.11(4.58)	34.41(3.81)	34.05(4.31)	a, c, d>b*
척도14(Q2요인)	28.84(4.54)	28.98(4.36)	28.90(4.69)	29.13(4.62)	
척도15(Q3요인)	35.94(4.88)	34.63(5.19)	35.82(5.74)	35.17(5.95)	
척도16(Q4요인)	30.46(5.87)	29.01(6.29)	29.51(7.95)	33.19(6.37)	d> a, b, c*
동기왜곡척도	27.02(4.70)	28.01(4.47)	28.25(5.50)	26.38(4.29)	
이차요인 척도					
외향성척도	259.27(56.08)	246.78(43.42)	266.59(47.83)	249.58(55.25)	
불안성척도	149.21(54.22)	146.73(50.78)	150.27(70.96)	173.62(56.47)	d>a, b, c*
강정성척도	170.39(42.41)	158.99(42.05)	143.69(43.65)	159.79(40.71)	a>c*
자립성척도	803.41(51.34)	788.52(46.87)	802.96(50.45)	785.73(46.42)	
초자아강도	413.87(51.23)	407.05(48.45)	425.84(46.37)	415.03(45.78)	
창의성척도	304.32(45.78)	299.09(39.67)	307.64(42.16)	305.67(42.76)	
무작위척도	11.60( 2.45)	12.66( 2.35)	12.00( 3.35)	12.92( 3.34)	

\* 표는 p<.05를 의미하며, 비교란에는 집단간에 .05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집단끼리의 비교를 명시하였음.

표5. 각 집단별 MMPI척도 평균점수. 괄호안은 표준편차

척도	정신분열증(a)	정동장애(b)	신경증(c)	비고
L척도	53.85(11.58)	54.65(11.30)	53.31(11.63)	
F척도	55.80(10.71)	52.14(11.54)	49.19(10.70)	a>c*
K척도	54.00(12.07)	54.49(12.31)	55.25(13.61)	
Hs척도	54.14( 9.34)	51.82(11.48)	62.26( 9.24)	c>a, b*
D척도	54.34(11.78)	53.08(15.21)	58.72(12.21)	c>b*
Hy척도	53.70( 8.59)	53.49(12.99)	62.96(10.67)	c>a, b*
Pd척도	54.53( 9.54)	54.53(10.62)	56.44( 9.15)	
Mf척도	53.11(10.39)	50.10(10.66)	48.04( 9.59)	a>c*
Pa척도	57.23(10.79)	54.73(12.35)	55.02(10.96)	
Pt척도	55.70(10.46)	54.69(14.87)	56.17(11.44)	
Sc척도	58.73( 9.99)	54.45(12.61)	55.70( 9.21)	
Ma척도	51.55(12.19)	53.43( 9.16)	50.12(10.30)	
Si척도	53.75(10.08)	47.76(12.83)	51.94(11.48)	a>b*

표6. 판별분석 structure matrix

	FUNC1	FUNC2	FUNC3
B요인	.47*	-.10	.19
L요인	.41*	.25	.34
A요인	-.12	.54*	.16
I요인	-.33	.51*	-.04
N요인	.31	.38*	.13
Q4요인	.30	.27	-.68*
E요인	.08	.31	.62*
F요인	.19	.41	.60*
O요인	.14	.46	-.47*

표7. 집단 Centroids값

Group	FUNC1	FUNC2	FUNC3
신경증	.39	.14	-.35
분열증	-.51	-.35	-.06
정동장애	-.49	.48	.14
정상집단	.70	-.10	.23

표8. 성격요인검사척도들을 사용한 집단간 판별분석결과

실제 집단명	사례수	예언된 집단명			
		신경증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정상집단
신경증집단	52	18(34.6%)	9(17.3%)	9(17.3%)	16(30.8%)
정신분열증	73	9(12.3%)	40(54.8%)	15(20.5%)	9(12.3%)
정동장애	49	8(16.3%)	8(16.3%)	26(53.1%)	7(14.3%)
정상집단	62	14(22.6%)	11(17.7%)	4( 6.5%)	33(53.2%)

척도 2가 “일반적인 무력감으로 나타나는 활동에 대한 흥미의 결여, 사교성의 결여”를 뜻하고 척도 0이 “사회적 장면에서의 불편함, 고립, 일반적 부적응”(김중술, 1988)을 뜻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화자아방어기제검사(이하 “이화방어검사”로 약칭) 및 스트레스보고검사(이하 “스트레스검사”로 약칭)의 회피척도와와의 부적인 상관도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높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김재은 등(1991)에 의하면 회피방어기제는 “갈등 상황이나 문제상황을 무조건 도피하고자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바, 척도 1과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낙천적이고 여유있는 문제해결방식”(김재은 등, 1991)을 측정하는 유우머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명료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결과와 비교할 때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임상집단의 표집수가 늘어남으로인해 본 연구에서는 MMPI와의 관계가 더 유의한 수준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특기할 사실은 표준화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척도 1(A요인)과 MMPI의 임상척도들과의 부적 상관관계이다. 한편 MMPI와의 구성타당도는 임상환자집단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있어서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척도에서 정동장애집단은 신경증집단, 정신분열증집단 및 정상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결과들(Karson & O'Dell, 1976; Cattell 등, 1970)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척도의 한국 임상장면에서의 기준타당도가 입증됐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에서 경향성으로만 나타났던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밝힌 것이므로 고무적이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2(B요인; 지능)는 MMPI의 F척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즉, 심리적 문제나 정신병리가 있을때 정신적 기능의 발휘에 지장을 받는다

(Karson & O'Dell, 1976; Cattell 등, 1970; Krug, 1981; 염태호와 김정규, 1990). 그리고 이 척도는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의 “합리화”, “부정”, “우울감정반응” 등, “병리적인” 방어기제들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므로써 MMPI의 결과들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척도2에서 정상집단이 정신분열증집단, 정동장애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 바, 이도 선행연구들(Karson & O'Dell, 1976; Cattell 등, 1970; Krug, 1981; 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지지해준다.

한편,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에서는 표집의 수가 적었던 관계로 정신분열증집단과 정상집단의 평균점수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데 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밝혀져 의미가 있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3(C요인; 자아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되었으며, 자신감이 있으며, 갈등을 잘 극복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염태호와 김정규, 1990). 이 척도가 MMPI의 F 척도 및 척도 1, 2, 3, 4, 6, 7, 8, 0과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이 척도의 구성개념과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척도는 높은 자아강도와 관련지을 수 있는 바(Krug, 1981), 위에 언급된 MMPI의 신경증 및 정신증적인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김중술, 1988)과의 부적인 상관관계는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높혀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의 신경증적인 방어기제들(투사, 전치, 해리, 신체화, 퇴행 등)과의 부적 상관관계, 그리고 성숙한 방어기제들(억제, 예견, 현실적대처)과의 정적 상관관계는 이 척도의 구성개념에 대해 정신역동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해준다고 하겠다(김재은 등, 1991).

한편 척도 3은 정상집단이 임상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므로써, 이 척도에 대한 기준타당도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표집

의 수를 더욱 늘여서 다시 검증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4(E요인; 지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지배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이다.

이 척도가 MMPI의 척도 9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MMPI척도 9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성격요소(김중술, 1988)와 부합되는 면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리고 MMPI 척도 2, 0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 척도들의 내향적인 성향과 대립되는 측면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의 외향적인 요소를 지닌 방어기제들(통제, 이타주의, 승화, 허세, 반동형성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도 이 척도의 구성개념에 부합되는 것들이라 하겠다. 가령, 이화방어검사의 통제 방어기제는 “개인이 자신의 불안을 줄이고 내적갈등을 해결하기위한 수단으로 주변환경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을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경향”을, 그리고 허세 방어기제는 “남 앞에서나 겉으로 과시하는 행동이나 태도”(김재은 등, 1991)를 측정하는 바, 척도 4(지배성)는 외적으로 향한 행동과 유관한 구성개념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화방어검사의 승화 및 이타주의와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것은 이화방어검사의 승화척도와 이타주의 척도의 문항내용들이 외향적인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위의 다른 결과들과 모순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 척도의 기준타당도와 관련해서 정상집단은 정신분열증집단 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므로써 선행연구들(Karson & O'Dell, 1976; Cattell 등, 1970; Krug, 1981; 염태호와 김정규, 1990)과 대체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5(F요인; 정열성)는 “정열적이고 쾌활하며, 낙천적이고 솔직한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측정하는데 MMPI의 척도 9와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척도 2, 3, 7, 0들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 내용적으로 서로 부합되는 결과라 하겠다. 이 척도와 우울증의 부적인 상관에 대한 선행연구(Karsa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 염태호와 김정규, 1990)와 위의 결과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의 “자아 확대적방식 방어기제들 (통제, 왜곡, 이타주의, 유우머, 승화)”(김재은 등, 1991)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의 구성개념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상집단과 정동장애집단은 정신분열증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므로써 선행 연구들(Brennan, 1967; Cattell, Komlos, &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Krug, 1981)과 대체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의 결과를 재확인 해주고 있으나 신경증집단의 점수가 표준화연구결과보다도 낮게 나타난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6(G요인; 도덕성)의 높은 점수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나타내는데 MMPI의 F 척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 척도는 초자아강도와 관련이 있어서 이드충동을 억제하고 자아를 활동하게 함으로써(Cattell 등, 1970) 낮은 병리적 증상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Karson과 O'Dell(1976)은 이 척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성을 측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MMPI의 F 척도와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의 척도들의 “행동억제적 방어기제들(합리화, 예견, 억제)”과 정적상관을, 그리고 “자아부정적 방어기제들(허세, 퇴행)” 및 “불안정한 예민화방식(행동화, 전치, 해리, 투가, 수동공격)”들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의 “초자아강도”와의 관련성과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isirability)”과의 관련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 척도에서 정동장애집단이 정신분열증 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므로써 선행연구 (Komlos,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들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의 결과를 재확인 해주고 있으나 정상집단과 신경증집단의 점수가 표준화연구결과보다도 높게 나타나서 정동장애 집단과의 차이가 없어진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7(H요인; 대담성)의 높은 점수는 “대담하고 남성적이며 모험적인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 9와 정적인 상관관, 그리고 척도 1, 2, 3, 4, 7, 8, 0 들과는 부적의 상관관을 보여 Cattell 등(1970)이 지적했듯이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하여(parasympathetic dominant), 어떤 위협상황에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않고 잘 대처해나간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는 척도 5에서와 마찬가지로 “회피”, “우울” 등의 소극적인 방어기제들과는 부적상관관, 그리고 “통제”, “왜곡”, “이타주의”, “유우머”, “승화” 등, “자아확대적방식의 방어기제들(김재은 등, 1991)과는 정적인 상관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의 구성개념은 외향적인 행동경향과 관련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척도는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 검사에서 모두 “예견”방어기제와 정적상관관을 보이므로써 척도 5 보다는 좀 더 성숙한 행동방식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이 척도에서 정동장애집단은 신경증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지만, 정신분열증집단이 정상집단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던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다(Brennan, 1967; Cattell, Komlos, &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Krug, 1981). 이 점은

후속연구에서 밝혀야 할 과제이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8(I요인; 민감성)의 높은 점수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의존적이며 여성적인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 9, 0과 정적인 상관관을 그리고 여성집단의 경우 척도 5와 부적의 상관관을 보였다. MMPI의 척도 9의 세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정서적 흥분성”을 들 수 있는 바(김중술, 1988), 성격요인 검사의 척도 8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여성집단에서 보인 척도 5와의 부적의 상관 또한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합치되는 결과이다. 즉, 여성집단에서의 낮은 Mf 척도점수의 의미는 “여성적인 취미와 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격”(김중술, 1988)인 바, 바로 성격요인 검사 척도 8의 높은 점수와 같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Mf 척도와의 관계에 대해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들(Kars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과 일치한다. 하지만 Karson과 O'Dell(1976)은 척도 8의 높은 점수를 동성애적인 경향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관심사”와 관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화방어검사와의 관계에서는 “반동형성”, “허세”, “동일시”, “퇴행” 등의 “자아부정적 방어기제”들, 그리고 “전치”, “신체화”, “해리”, “투사”, “수동공격” 등 “불안정한 예민화방식”(김재은 등, 1991)들과 정적상관관을 보여서 Cattell 등(1970)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경증적 적응장애” 및 “정신신체장애”들과의 관련성이 지지되었다.

한편, 이 척도에서 정동장애집단은 정신분열증 집단, 신경증집단 그리고 정상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Krug, 1981).

성격요인검사의 척도 9(L요인; 불신감)의 높은 점수는 “사람을 믿지못하고 의심하며 질투하고, 적대적인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 7, 0과 부적의 상관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척도들과 정적인 상관관을 보고

한 선행연구(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들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통제”, “왜곡”, “유우머”, “이타주의”, “승화” 등, “자아확대적 방어기제”(김재은 등, 1991)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서, 자신의 갈등을 외적인 상황의 통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도 이 척도의 구성개념의 뜻하는 바, “불안정한 투사 긴장(protension; Cattell 등, 1970)”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척도에서 정상집단은 정신분열증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것도 이 척도의 구성개념에서 기대되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에서 나타났던 경향을 재확인 해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한국판 표준화과정에서 원판의 문항들 중에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이 탈락되어, 척도 9(L요인)의 구성개념이 “공격적이며 외향적인 충동성” 쪽으로 그 의미가 다소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의 해석과정에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0(M요인; 사변성)의 높은 점수는 “사색하기 좋아하고, 세상물정에 어둡고, 공상을 즐기는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 F, 6, 8, 9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 임상집단에 있어서 Cattell 등(1970)이 말한 “자폐적이고, 내면적 자동사고”와 유관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남성집단에 있어서 이 척도는 MMPI의 Mf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여서 Mf 척도의 구성개념적인 의미인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경향성”(김중술, 1988)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화방어검사와의 관계에서는 “신체화”, “해리” 등의 “불안정한 예민화방식” 그리고 “하

세”, “반동형성”, “동일시”, “퇴행” 등의 “자아부정적 방식”, 그리고 “통제”, “왜곡”, “이타주의”, “유우머”, “승화” 등, “자아확대적방식의 방어기제들(김재은 등, 1991)”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는 다양한 방어기제들과 관련있음이 밝혀졌다. 즉, “불안정한 예민화”나 “자아부정적 방식” 등의 부정적인 방어와 관련되는 동시에 “자아확대적 방식”처럼 경우에 따라선 긍정적인 방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척도에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간에 유의한 점수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이 척도가 단일적으로 해석되는 것 보다는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가령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척도 15의 점수도 함께 높을 때는 창의성을 발휘하지만, 척도 15의 점수가 낮을 경우는 신경증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다(Karson & O'Dell, 1976). 그리고 정상집단 중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척도의 높은 점수는 창의성과 관련될 수 있지만, 임상집단의 경우에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관련있다(Cattell 등, 1970).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1(N요인; 실리성)의 높은 점수는 “약삭바르고 실리적이며 기민한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 F, 2, 4, 6, 7, 8, 0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Karson & O'Dell, 1976; Cattell 등, 1970; Sherman & Krug, 1977)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는 “통제”, “유우머” 등, “자아확대적방식의 방어기제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예견”, “억제” 등의 “행동억제적 방식” 그리고 “현실적대처”와도 정적상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의 구성개념은 외향적인 행동경향과 관련있는 한편, 그와 동시에 신중한 행동경향과도 유관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척도의 구성개념과 내용적으로 부합된다고 하겠다.

한편, 정신분열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지지되었다(Cattell, Komlos, &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Krug, 1981).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의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제공해주고 있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2(O요인; 죄책감)의 높은 점수는 “확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며, 죄책감을 갖는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 F, 1, 2, 3, 4, 6, 7, 8, 0과 정적인 상관율, 그리고 L, K 척도와는 부적 상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Sherman & Krug, 1977; Karson & O'Dell, 1976; Cattell 등, 1970; 염태호와 김정규, 1990)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는 “허세”, “퇴행”, “동일시”, “반동형성” 등, “자아부정적방식의 방어기제”들, 그리고 “행동화”, “전치”, “신체화”, “해리”, “투사”, “수동공격” 등의 “불안정한 예민화방식”들과 정적인 상관율을 보여, 주로 정신병리적인 방어기제들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신경증집단이 정신분열증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지만(Cattell, Komlos, &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Krug, 1981), 정신병집단이 정상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후속연구에서 밝혀야 할 점이다. 추정해보건데 정신병집단에서 만성환자들이 섞여 있어서, 흔히 이들이 보이는 증상적응현상(symptom adaptation)과 유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차후의 연구에서는 정신병집단을 만성집단과 급성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3(Q1요인; 진보성)의 높은 점수는 “진보적이고 실험적이며,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비판적인 성격”(염태호와 김정

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들과는 상관 있는 척도가 없었고,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는 “반동형성”, “퇴행” 등의 “자아부정적 방식”, 그리고 “부정”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는 “미해결된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있다는 Karson과 O'Dell(1976)의 주장이 지지되고 있다.

이 척도에서 정상집단, 신경증집단, 정동장애 집단은 모두 정신분열증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연구(염태호와 김정규, 1990)의 결과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한편 다른 선행연구들(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에서는 정신분열증 집단이 정상집단 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다른 임상집단에 비하여 더 낮은 점수를 보이지는 않았었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4(Q2요인; 자기충족성)의 높은 점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립적이며,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들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화방어검사와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도 “부정”방어기제와만 정적상관을 보이므로써, 이 척도가 비교적 독립적인 순수한 성격적 차원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MMPI 검사의 Si 척도와 정적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Sherman & Krug, 1977)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이 척도에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들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 염태호와 김정규, 1990)의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5(Q3요인; 자기통제력)의 높은 점수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는, 세련되고 강박적인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들과의 관계에서 척도 F, 2, 4, 7, 8, 0과 부적 상관율을 보였는데, 이는 이 척도의 구성개념적 의미에 부합되는 결과라 하겠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과도 일치한다. 이화방어검사와의 관계에서는 “왜곡”, “억제” 등의 “자아확대적방어기제”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수동공격”, “투사”, “전치”, “행동화” 등 “불안정한 예민화방식” 및 “허세”, “퇴행” 등의 “자아부정적 방식”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Karson & O'Dell(1976)이 말한 “불안 통제능력(ability to bind anxiety)”와 관련됨이 입증되었다.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특히 “억제” 및 “현실적대처”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지지해준다. 한편,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의 비교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척도에서 신경증집단의 낮은 점수를 보고한 선행연구들(Cattell, Komlos, &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의 결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성격요인검사의 척도16(Q4요인; 불안감)의 높은 점수는 “불안하며 긴장되고 초조하며, 쉽게 좌절되는 성격”(염태호와 김정규, 1990)을 뜻하는데 MMPI의 척도들과의 관계에서 척도 F, 1, 2, 3, 4, 6, 7, 8과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척도 L, K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들(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한 이 척도의 구성개념적 의미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MMPI 검사의 임상척도들에 공통적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불안감이 이 척도와의 정적상관관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는 “수동공격”, “투사”, “전치”, “행동화”, “신체화” 등 “불안정한 예민화방식” 및 “허세”, “퇴행”, “동일시” 등의 “자아부정적 방식”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관련됨이 밝혀졌다.

한편,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의 비교에서는 신경증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선행연구들(Cattell, Komlos, & Tatro, 1968;

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Sherman & Krug, 1977; Krug, 1981; 염태호와 김정규, 1990)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성격요인검사의 동기왜곡척도(MD요인)는 피검자가 검사에 임할 때, 자신의 진정한 성격의 측면이나 동기를 숨기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이 척도의 MMPI와의 관계에서는 척도 K와 정적인 상관을, 그리고 척도 F, 1, 2, 3, 4, 7, 8, 0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서 이 척도의 구성개념(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과 잘 부합된다고 하겠다. 즉,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MMPI 검사의 정신병리적 증상을 묻는 질문들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문항이 많았다.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검사와의 관계에서는 “수동공격”, “투사”, “허세”, “퇴행”, “동일시”, “회피” 등의 부정적 이고 미성숙한 방어기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승화”, “억제”, “통제”, “승화”, “예견”, “이타주의”, “유우머”, “현실적대처” 등, 비교적 적극적이고 성숙한 방어기제들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때 동기왜곡척도는 단순한 응답조작적(response manipulative) 성향을 측정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현실 적응능력” 내지는 “현실 적응상태”와 유관하다고도 볼 수 있겠다. 한편, 이 척도에서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억제적이고 왜곡적이며 “환경순응적인”(adaptive; Lazarus, 1976) 성격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한편 이 척도에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들은 유의한 점수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격요인검사의 척도들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즉, 정상집단과 임상집단들의 성격요인검사 척도점수들의 의미있는 차이들이 집단간의 동기왜곡 경향성의 정도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밝혀진 것이다.



다시말해서 각 개인들의 수검태도는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각 피검자들의 특성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그래서 지필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대답하려는 경향성(social desirability)”의 문제(Borkenau & Amelang, 1986; Fahrenberger 등, 1989)가 비록 성격요인검사에 있어서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어느 특정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경향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집단간의 비교에서 결과 해석을 비교적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성격요인검사의 이차요인 척도들에 대하여는 (표 1)과 (표 4)를 참고하기로 하고 지면관계상 개별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차요인의 불안성척도에서 신경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와 강정성척도에서 정상집단이 정동장애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들(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과 일치하며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MMPI 분석결과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신경증의 세 척도들 Hs, D, Hy만이 신경증집단과 정신증집단을 변별해 줄 뿐, MMPI 검사가 정신증집단의 상호변별에는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MMPI의 단독척도들만으로는 임상집단의 특징을 잘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격요인검사를 사용했을 경우에 12 개의 일차요인과 2 개의 이차요인이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혹은 임상집단상호간을 비교적 잘 변별해주고 있으며, 또한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요인검사의 척도들을 사용하여 임상집단들을 판별할 때, 상당히 높은 판별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성격요인검사의 임상적 활용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할 점으로서

임상집단을 보다 진단별로 세분화하여 표집하고, 또 정신병집단은 급성과 만성집단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 참고문헌

- 김영환·김재환·김중술·노명래·염태호·오상우 (1989). 다면적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
- 김정규(1990)성격요인검사 표준화예비연구. 사회과학논총. 성신여자대학교
- 김정규·염태호(1991): Cattell 의 성격이론과 성격요인검사. 학생생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 김중술(1988):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염태호·김정규(1991):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2권 제 4호
- 김재은·이근후·김정규·박영숙(1991): 이화방어기 제검사 실시요강. 하나의학사
- 염태호(1990): 성격의 유형과 특성. 학생생활연구, 경희대학교, 7: 149-198
- 염태호·김정규(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염태호·김정규(1991): 한국 고교생과 대학생집단의 계열별 성격특징에 관한 연구(미 발표)
- 이근후·김재은·김정규·박영숙(1991): 이화방어검사 표준화연구. 신경정신의학 30(3): 582-592
- 이지숙(1990): 알콜중독자와 그 자녀의 성격유사도 및 자녀의 스트레스정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영숙(1990): 자아방어 진단검사 표준화예비연구. 이화의대지 13(3): 233-242
- Borkenau, P. & Amelang, M. (1986): Zur faktorenanalytischer Kontrolle Sozialer Erwü nschtheitstendenzen. Eine Untersu-

- chung anhand des Freiburger Persönlichkeitsinventars, *Zeitschrift für Differentielle und Diagnostische Psychologie*, 7, 17-28.
- Brennan, J. G. (1967) : The 16 PF psychiatric diagnosis illustrated by five group profiles, Unpublished MA thesi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Cattell, R. B. (1957) : The conceptual and test distinction of neuroticism and anxiety. *J. of clin. Psychol.* (13), 221-233.
- Cattell, R. B. & Nesselroade, J. R. (1965) : Untersuchung der interkulturellen Konstanz der Persönlichkeitsfaktoren im 16 PF Test. *Psychologische Beiträge*, 8, 502-515.
- Cattell, R. B., Komlos, E., & Tatro, D. F. (1968) Significant differences of affective, paranoid and non-paranoid schizophrenic psychotics on primary source traits in the 16 PF. In R. B. Cattell (Ed), *Progress in Clinical Psychology through multivariate experimental designs*, Fort Worth, Texas : Society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
- Cattell, R. B., Schröder, G., & Wagner, A. (1969) : A Verific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16 PF Questionnaire in German. *Psychologische Forschung*, 32, 369-386.
- Cattell, R. B., Eber, H. W., & Tatsuoka, M. M. (1970) : Hand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IPAT, INC., Champaign, Illinois.
- Fahrenberger, J., Hampel, R., Selg, H. (1989) : Das Freiburger Persönlichkeitsinventar. Göttingen, Hogrefe.
- Farr, R. M & Moscovici (1984) : Social Representation. Cambridge Univ. Press.
- Karson, S., & O'Dell, J. W. (1976) : Clinical Use of the 16 PF. IPAT, Champaign, Illinois.
- Krug, S. E. (1968) : A Test of Cattell's "trait view" theory of distortion in measurement of personality by Questionnaire. Unpublished MA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 Krug, S. E., & Cattell, R. B. (1970) : A Test of the "trait view" theory of distortion in measurement of personality by Questionnair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in Press.
- Krug, S. E. (1981) : Interpreting 16 PF Profile Pattern. IPAT, INC., Champaign, Illinois.
- Millham, J. & Kellogg, R. W. (1980) : Need for social approval : Impression management or self deception : *J.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 445-457.
- Lazarus, R. S. (1976) : *Patterns of Adjustment*. Tokyo : McGraw-hill.
- Mummendey, H. D. & Bolton, H. G. (1981) : Die Veränderung von socialdesirability Antworten bei erwarteter Wahrheitskontrolle (Bogus-Pipeline-Paradigma). *Zeitschrift für Differentielle und Diagnostische Psychologie*, 2, 151-156.
- Rosch, E., Chassein, J., Semin, G. R., & Krolage, J. (1984) : Psychometrische Modelle der Persönlichkeit als soziale Konstruktionen : Experimentelle Untersuchungen zu Gütekriterien.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43, 91-110.
- Sherman, J. L., & Krug, S. E. (1977) : Personality-somatic interactions : The research evidence. In S. E. Krug (Ed.), *Psychologi-*

cal assessment in medicine, Champaign,  
Ill, IPAT.

Wittman, W. W. & Schmidt, (1983) : Die  
Vorhersagbarkeit des Verhaltens aus

trait-Inventaren, Forschungsberichte des  
Psychologischen Instituts der Universität  
Freiburg, Nr. 10.

##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Personality Factor Test**

Jung Kyu Kim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testing the validity of the Korean Personality Factor Test(KPFT) standardized in Korea, which was not satisfactorily done by the time of its standardizing, to help clinicians use it better in their assessment works.

The Tests used in examining the construct validity in this study are MMPI, Ehwa Defense Mechanism Test and Stress Report Inventory. It has been turned out that in most of the scales of the KPFT the results shown in this study corresponded to those of the standardization study or those of other antecedent researches.

The correlations of the scales of the KPFT with MMPI came out mostly in expected direction and the correlation study with the Ehwa Defense Mechanism Test helped understanding the dynamic aspects of the scales of KPFT. The use of the Stress Reporting Test which included ratings by a psychiatrist and a psychologist enabled this study to avoid problems that arise often in the studies using only self reporting inventories.

Discriminance analysis using scales of KPFT classified 54.8% of schizophrenics, 53.1% of mood disorder psychoses, 34.6% of neurotics and 53.2% of normals correctly.

(부 록)

## 스트레스 보고 검사

귀하께서는 아래에 언급한 상황들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1. 내가 한 일을 남이 몰라줄 때.
2. 싫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됐을 때.
3. 가족이나 친척이 잘 됐을 때.
4. 윗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5.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6. 계획한 일이 잘 안될 것 같을 때.
7. 옷을 화려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을 볼 때.
8. 보기 싫은 사람이 설치는 것을 볼 때.
9.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할 때.
10.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열등감이 들 때.
11. 시험이나 바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12. 누가 나를 오해할 때.
13. 누가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
14. 건강이 좋지 않을 때.
15. 내가 약속시간에 늦었을 때.
16.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17. 하는 일이 잘 안될 때.
18. 비싼 승용차를 타고가는 사람을 볼 때.
19. 지하철에서 발을 밟혔을 때.
20. 나보다 못하던 친구가 더 출세했을 때.
21. 다른 사람으로 부터 인정을 못 받을 때.
22.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
23.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을 때.
24.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
25.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26. 윗사람으로 부터 야단맞을 때.
27. 누구에게 무시 당할 때.
28. 상대방이 약속시간을 안 지킬 때.
29. 남이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할 때.
30. 이웃집에서 좋은 물건을 들여놓고 자랑할 때.
31. 내가 아끼던 사람이 내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32. 밖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33.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34.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해야할 때.
35.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
36. 상대방의 이야기가 지루할 때.
37. 상대방이 화를 낼 때.
38.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39.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40. 집안에 걱정스런 일이 있을 때.